

그 사람 지금은

(41) '5월의 사제' 김성용 신부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운주사

“완도에 황토집 짓고 5월 영령위해 기도하죠”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탱크를 맨 물으로 막아선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한 사람 '5월의 사제', 김성용 신부(74)를 만났다. 김 신부는 3년 전 은퇴한 후 완도로 내려가 손수 지은 황토 집에서 살고 있다.

완도군 완도를 중도리 115의 3 '수강재'(壽康齋). 수강재는 그가 지은 집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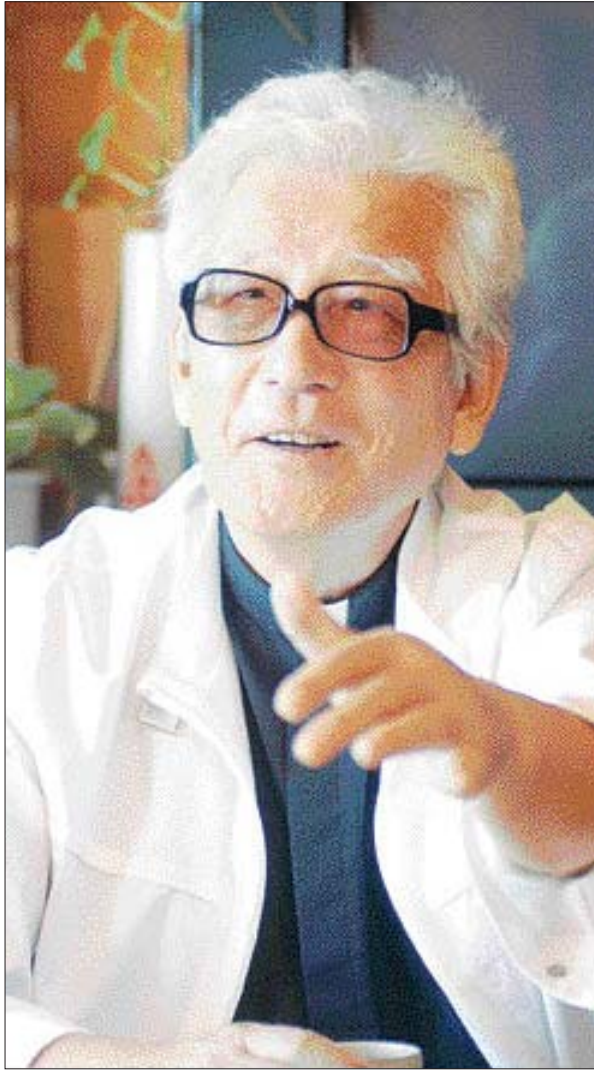
김 신부의 집 수강재는 파란 남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야트막한 소나무 숲 언저리에 지어진 한옥이다. 집 안에서 보면 마치 바다가 정원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풍경이 전개되고, 마당에 내려서면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긴다.

정원에는 로즈마리 등 허브와 코스모스, 채송화, 수십 가지 들꽃이 가득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김 신부는 마당에서 갖 뜯은 로즈마리로 허브차를 끓여준다.

김 신부가 지은 집은 대지 903평에 살내 면적이 32평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합하면 총 2억6천만원이 들었다.

김 신부는 5월 항쟁 당시 주요 가담자로 분류돼 1년2개월의 감옥살이를 했다. 부상자나 구속자 등 대다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지만 김 신부는 수년 동안 보상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뜻한 바가 생겨 보상을 신청했다고 한다.



1964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한 김성용 신부(왼쪽 왼쪽에서 세번째)

교)에 진학 당시 광주교구 추천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1964년 사제서품(명동성당) 이후 광주교구 소속 신부로서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제생활을 했다.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그저 광범하기만 했던 '보통 신부'였던 그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의해 인생이 굴절(?)됐다고 주장한다.

80년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

신군부 때 옥살이...90년대 무죄판결

그는 80년 5·18 당시 남동성당 주임신부였다. 남동성당은 1970년대부터 서울의 명당 성당처럼 민주인사들의 피신처나 각종 인권과 관계된 움직임이 일었던 곳이다. 80년 때도 자연스럽게 민주인사들이 남동성당으로 끌려들었다.

결국 지역의 민주인사들과 5·18을 원만히 수습하지는 차원에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항쟁이 계엄군의 진압으로 막을 내린 뒤, 연행된 그는 1실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여론에 밀린 탓인지 12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서는 또 다시 형량이 깎여 6년으로 감형됐다. 실제 수감생활은 1년 2개월이었으며, 90년대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교도소 독방생활, 서울 서빙고 보안사 취조실에서의 고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탓에 계엄군에 대한 미움이 골수에까지 뻗어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부질없이 느껴진다고 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약력**
- ▲1934년 전북 신대인 출생
 - ▲목포고 졸업
 - ▲서울가톨릭대학 졸업(광주교구 소속 신학생)
 - ▲나주성당 보좌신부, 담양성당 주임신부
 - ▲1980년 5월 남동성당 주임신부·5·18 시민수습대책위원회 대변인

요, 기본설계도 내가 직접 했죠.” ‘수강재’라는 이름은 웰빙하우스를 우리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한자 표현대로 하면 건강과 장수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다.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성적으로, 신앙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 주는 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신대인에서 태어난 그는 전매청 직원이었던 부친의 직장 관계로 광주·전남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본적도 광주로 돼 있다.

목포고를 졸업한 뒤, 서울 가톨릭대학교(당시 성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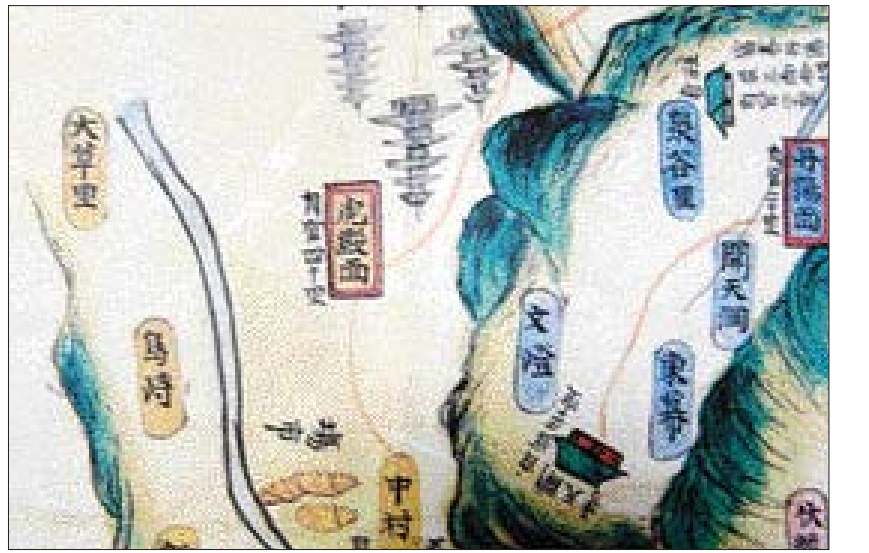
250톤 와불·북두칠성형 석판 등 언제, 누가, 왜 세웠는지 '미스터리'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에 있는 운주사는 비밀로 가득한 곳이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이 있는 곳으로 처음 소개된 뒤, 雲住·雲柱·運舟·다탑봉(多塔峰)으로 달리 표기됐다.

누가 언제 왜 세웠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왜 그렇게 조성했는가.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됐으나, 아직도 미스터리다. 창건 주체부터 호족세력, 이민족 집단, 노비와 천민들, 도선국사, 고려 승 해명, 몽골군으로 다양하다. 사찰이 아니라 도교 시설이라는 주장, 장보고 추모유적지까지 나왔다.

1984년 보물 796·798호로 지정된 9층석탑·원형다층석탑을 비롯 등을 맞댄 두 불상을 모신 석조불감(보물797호), 부부 같은 250톤 와불(와형석조여래불·전남유형문화재 273호), 북두칠성형 대형 석판(칠성석), 특이한 문양, 짝수(6층)와 홀수(4층)로 구성된 19세기 초 약사전이 복원됐음이 밝혀졌다.

최근 고촌심 선생의 '운주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했다. 운주사 자체를 텍스트로 읽고, 지향하는 세계를 지형과 명칭·석탑과 석불의 배치와 문양·설화와 신앙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19세기 능주목 지도에 수록된 운주사 일대.

지형이 삼태극(三太極)으로 공사바위, 와불, 개천산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雲住(운주)는 의식의 각성(지금 여기의 나를 읽)으로 도달점(지향태·◇)이고, 運舟는 참 나를 행함으로 노력의 과정(실천태·×)이다. '×' 문양은 조화, '◇'문양은 빛을 뜻한다. 천부사상은 '광명'을 의미한다. 천부(天符)는 천수지리(天數之理)로 하늘의 인장(印章) 곧 신표다.

석탑의 좌우·상하·상배를 배치에서 좌·상·원형다층석탑은 天·원(○)·陽·원형질, 중·중·상배불은 人·각(△)·中·이행체, 우·하·7층석탑은 地·방(□)·陰·실현체로 되어 전체와 부분이 도형 구조를 형성한다.

전체 배치 축선은 '田'자 구도로 테두리를 지우면 정십자(+)다. 정십자는 지금 여기의 나를 읽의 뜻을 지닌 깨달음의 상징적 표현으로 9층 석탑과 명당탑에 나타나 있다.

소설가 한승원은 이를 사람은 누구든지 도를 닦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면 극락정토에 가서 살게 된다는 상생신앙의 결과로 보았다. 운주사는 요충지였다. 서편 월전마을에 능주 서창(西倉)터, 동편은 대조장이 있었다. 남쪽 중장터는 '중터 마을 시장'을 줄인 것이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위원장

4주 연속 인기 프로그램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기호로도 난청 발생입니다.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무엇보다도 기호입니다. 기호입니다. 기호입니다.

상담전화 1588-8499 080-222-0100